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제8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 성료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온·오프라인 독서체험 활동 장휘국 교육감, 14일 오프라인 행사 참여해 학생들 격려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 광주MBC와 공동으로 운영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제8회 꿈을 실은 독서열차'를 11·12·14일 삼일 동안 운영했다. 17일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따르면 제8회를 맞은 '꿈을 실은 독서열차'는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말

하기와 독서력 향상 기회를 마련하고 창의력의 기반이 되는 독서 가치를 공유·확대하기 위해 운영돼 왔으며, 올해는 광주 지역 고등학교 21개교 5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참가한 학생들은 지정도서 '어디서 살 것인가?', '사람사전'을 읽고 독후감 및 토

의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 독서활동에 참여했고, 북콘서트·스피치교육·특강 등 오프라인 독서활동 시간도 가지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독서열차의 마지막 날 행사에 광주MBC 김두식 아나운서와 한가람 PD를 초청해 스피치 강연과 직업 관련 특강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저자와의 만남 시간'에는 유현준 건축가를 초대해 사전에 읽은 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래형 학교 공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도 가졌다. 지난 14일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한 장휘국 교육감은 "학생들이 '꿈을 실은 독서열차'를 통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꿈과 희망·열정을 찾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 행복한 배움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동신여고 한 학생은 "지정도서를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필사하고, 가족과

함께 책 읽는 사진도 찍으며 '꿈을 실은 독서열차'에 즐겁게 참여했다"며 "특히 유현준 건축가와 학교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던 '저자와의 만남 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이미라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참가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함평초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책 놀이-네가 좋아!'

성취감 및 자신감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



함평초등학교(교장 정병헌)에서는 3일부터 14일까지 교내 1학년 중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특별 프로그램 '책 놀이-네가 좋아!'를 운영했다.

교육복지우선 프로그램은 다음숲 마을 학교와 공동진행했으며, '지구', '자연'과 관련된 그림책을 선정해 △그림책 읽어주기 △책 내용에 대한 내 생각 말하기 △재미있는 책 놀이 활동 등으로 구성했

다. 학생들은 '우리가 함께 쓰는 물, 흙, 공기' 등을 함께 읽으며 휴지심으로 나무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재활용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창의 활동과 함께 지구와 숲, 많이 쓰면 사라지는 자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 강사는 "지구를 아껴주게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학생들이 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자연 자원이 언제가는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사는 지구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했다. 정병헌 교장은 "이번 책 놀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책이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재미난 놀이감으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평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 맞춤형 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전남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투명성 높아졌다

역대 최대인원...전남교육청 사학공공성강화 방안 탄력 받아

2021학년도 전남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 채용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2021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 신청'에 도내 57개 사립학교 법인 중 37개 법인(51교)에서 162명을 위탁 채용으로 뽑겠다고 신청했다. 이번 위탁 신청의 법인 참여율은 64.9%이며, 신청인원도 21개 법인에서 121명을 채용했던 2020학년도에 비해 41명이 증가했다. 또한, 15개법인 19교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인 수업실연까지 위탁하는 등 전남교육청의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기자

이번에 사립학교 법인에서 신청한 인원이 모두 채용될 경우 2021학년도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은 24.2%로 2020학년도에 비해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 인원은 2017년 5개교 10명, 2018년 6개교 9명에서 민선 3기 출범이후인 2019년 13개교 27명, 2020년 35교 121명으로 대폭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민선 3기 출범이후 사학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위탁 채용 참여 학교에 시설사업비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립 동시지원제를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확대하였다. 김정환 기자

화순교육청-화순경찰서 연계 '더봄·또봄 가정방문'

장애 인권지원단 더봄학생 대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원식)은 지난 14일 화순경찰서와 함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더봄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가정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더봄, 또봄' (더보고, 또보고) 가정방문은 더봄학생 7명 외에도 가정방문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 2명을 포함하여,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화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가정환경 및 생활시설을 확인하고, 거주지 주변 순찰 및 CCTV 등을 점검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더봄학생 학부모는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서 가정과 주변시설을 점검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아이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들이 많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최원식 교육장은 "방학 기간에도 더봄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방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찰서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 밖 관리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주서부교육청, '교원마음치유 직무연수' 실시

광주 교원 120명 대상...힐링 체험 연수 진행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광주광역시 교원 120명을 대상으로 광주학교시설지원단 외 3곳에서 '2020년 교원마음치유 직무연수'를 12-13일 이틀 동안 실시했다. 14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관참례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교직 스트레스 해소, 자가 예방 역량을 강화해 교사가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됐다. 교원들의 효과적인 심리적 치유와 성장을 주제로 한 이번 직무연수는 ▲커피와 기와 마음치유 ▲가족공예 체험을 통한 마음치유 ▲도예체험을 통한 마음치유 ▲힐링요가 등 4개 체험과정으로 구성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험연수를 진행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개의 체험과정을 총 8시간 동안 분리 운영했으며, 시간당 연수 참여 인원을 15명 이내로 최소화했다. 특히 4개의 체험과정 중 힐링요가의 경우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가 동작, 교사가 겪을 수 있는 통증 완화법, 공감적 반응 훈련을 통한 학생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조인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